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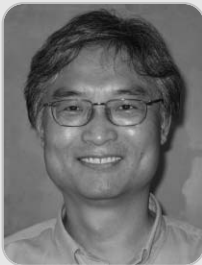
독자에 대한 예의, 도서정보의 제공

문화의 중요성

지금 우리나라는 기로에 서 있다. 경제는 신자유주의와 Global FTA 시대를 맞아 근본적인 구조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고, 사회 또한 경제적 변화의 후폭풍으로 사회 양극화와 구조조정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문화는 어떠한가?

문화는 경제지상주의의 그늘 아래 생존에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소외받아온 게 사실이다. 누가 한 끼의 도시락과 책 한 권을 바꾸겠는가?

그리고 문화의 대들보, 경제의 대들보, 정치의 대들보로 탄탄히 구축되어야 할 교육 또한 사회적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표류하고 있다. 특히 경제지상주의에 매몰된 시민들은 교육에서도 오직 신분 상승과 경제적 성공이라는 지표만을 추구하고 있다. 국민소득 천 불의 시대 우리가 들은 구호는 “잘살아보세.”였는데 국민소득 2만 불을 눈앞에 둔 오늘 우리의 구호는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다. 국민소득 4만 불을 외치는 정치인은 있으나 동물적 생존 경쟁 대신 “함께 잘사는 사회, 이웃을 위해 모두가 양보하



김 홍 식
도서출판 서해문집 대표
keenme@hanmail.net

문화는 결코 정치적 담론도 아니요, 사회적 담론도 아니다.

문화란 인간이 인간으로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문화가 없는 인간, 문화가 없는 민족, 문화가 없는 나라는 존재할 수 없다.

어느 역사에 가난해서 멸망한 나라가 있는가?

는 사회”를 이야기하는 정치인은 없다. 언제까지 우리는 돈의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가?

만일 인간이 동물적 생존경쟁 사회에 내몰린다면 능력 없는 인간이 낙오되는 것조차 합리화될 것이다. 사자의 생존경쟁이 인간 사회에 통용되지 않는 것은 인간만이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책의 중요성

이제 우리는 문화를 이야기해야 한다. 문화는 결코 정치적 담론도 아니요, 사회적 담론도 아니다. 문화란 인간이 인간으로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문화가 없는 인간, 문화가 없는 민족, 문화가 없는 나라는 존재할 수 없다. 어느 역사에 가난해서 멸망한 나라가 있는가?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 풍요로운 경제력을 확보했다 해도 독자적 문화(언어를 포함함)를 소유하지 못한 사회는 사라지고 만다. 문화를 가꾸어야 하는 까닭은 바로 잘살고 풍요롭고 영원히 번영하기 위해서지 가난 속에서 죽림칠현의 자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21세기가 굴뚝의 시대가 아니요, 창의력과 상상력의 시대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 두 요소는 말 안 해도 알다시피 문화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센과 치히로의 모험>은 우리의 각성을 요구하고 있다. 영화의 완성을 위해 발품을 판(그림을 그린) 대한민국에 돌아온 대가가 10억 원인데 비해 머리를 쓴(기획한) 일본 지부리 프로덕션에게 돌아간 대가는 3천억 원이었다고 한다. 왜 문화가 경제의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지, 왜 문화가 21세기의 국력에서 원천이 될 수 있는지 이 사례는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제 책을 이야기할 때다. 책은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책은 이상을, 상

상을, 창조를, 꿈을 이야기함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매체다. 책은 이전 세대가 이루어놓은 문화유산을 후세대에게 전함으로써 보다 진보된 문명에 도달하도록 하는 매개체이다. 돈 버는 법, 예뻐지는 법, 남보다 출세하는 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책이 아니다. 그것은 책의 탈을 쓴 기술이다.

21세기 초입에 정부에서 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책 읽는 교육을 이야기하고 독서권을 이야기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사회 곳곳의 말단에서는 책의 효용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학교의 도서관은 첨단 하드웨어에 쇄국주의 시대의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있다. 수많은 서점들은 베스트셀러 목록을 발표함으로써 책이 가장 기피해 온 집단화, 균중물이, 모방을 조장하고 있다. 출판사들은 인기 작가를 잡는 데 혈안이 되어 새로운 작가, 우리만의 문화 상품을 만드는 데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 작가들은 이제 창조하는 고통 대신 모방하고 변주하는 편안함을 통해 경제적 안락만을 꿈꾸고 있다.

물론 그와 반대의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

첫째, 시민에게 문화의 중요성을 최초로 보급하는 학교 도서관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이는 도서관 운영의 모범적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비교해 보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비교 가능할 것이다.

둘째, 책의 본래적 기능을 되살리기 위한 출판계 자체의 노력이 시급하다. 출판을 단순히 돈을 버는 사업으로, 나아가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업으로 인식하는 출판인이 증가한다면 우리나라 문화의 앞날은 우울하다.

셋째, 그럼에도 회임기간이 긴 문화상품으로서 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책이 필요하다. 책은 결코 일회용 치약이나 과자가 아니다. 대부분의 상품이 1년생며, 보리라면 책은 수 년 후에나 첫 수확을 얻게 되는 사과나무요, 배나무다. 따라서 그 상품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출판산업의 중요성

최근 들어 정부에서는 출판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다양한 지원책과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도 수많은 선생님들이 독서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그리고 학교 도서관 활성화와 합리적 운영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

이제 이러한 움직임에 출판계가 응답해야 할 때다. 이런 기회를 이용해 자신의 작은 잇속을 챙기려는 태도는 지양하고 30년, 100년 앞의 인간과 나라를 육성한다는 사명감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그리고 출판 관련 여러 단체에서도 이러한 양서 출판인들의 분투를 분별하고 격려해 준다면 그러한 출판인들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한다.

오늘도 대한민국 서점에는 200권에서 300권에 이르는 새 책이 출시되고 있다. 1년이면 약 5만 종, 그렇다면 인간이 독서할 수 있는 기간을 30년으로 본다면 150만 종의 새로운 책이 한 사람의 평생 동안 제공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독서하는 인간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책을 읽고자 하는 독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아무리 속독을 익힌 독자라 하더라도 평생 만 권 이상을 읽기 힘든 점을 감안한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떤 책을 읽으라고 출판인들은 독자에게 권고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출판인들만 노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 언론, 그리고 도서관, 서점, 출판인 모두가 한 마음으로 자신들이 해야 할 사명의 일환으로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 집단이 함께 해야 한다고 해서 또 다른 집단의 의무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의무라 여기고 독자들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양한 단체, 출판 관련기관, 정부 등의 도서정보 구축 및 제공

최근 다양한 단체, 출판 관련 기관,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도서정보의 구축

최근 들어 더욱 고무적인 현상은 출판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의 다양한 매체 간행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각 단체의 성격에 걸맞은 계층, 분야, 내용의 도서를 선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각 계층의 효율적인 독서에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및 제공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우선 인쇄매체에 의한 다양한 방식이 있다. 최근 들어 더욱 고무적인 현상은 출판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의 다양한 매체 간행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각 단체의 성격에 걸맞은 계층, 분야, 내용의 도서를 선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각 계층의 효율적인 독서에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으니 정보의 구축에 꽤 큰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오프라인 방식이 온라인 방식에 비해 큰 비용이 소요되는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간행물윤리위원회, 문화관광부, 학술원, 출협, 출판인회의 등 다양한 출판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추천도서 목록이다. 이 또한 객관적으로 검증된 도서 정보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효율적으로 독자들 손에 정보가 주어지지 못한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일부에서 시작되고 있어 미래를 밝게 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좀 더 효율적인 방식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온, 오프라인 서점의 도서 안내는 현재로서는 매우 좁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궁극적으로 도서를 구매하는 독자들은 서점에서 다양한 도서정보를 참고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현재 그러한 기능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면이 크다. 특히 이는 중소형 서점의 존폐 문제와 연계되었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 그리고 출판계 전체적 측면에서 서점을 통한 정보 제공 방식에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출판협동조합 등이 이에 대한 필요성을 숙지하고 대응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어 향후 바람직한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에 대해 기대를 하게 된다.

도서관과 출판계의 노력

도서관과 학교의 독서정보 제공은 실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에도 현실에서는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도외시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독서 네트워크의 가장 방대하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도서관과 학교에서의 효율적 독서정보 제공과 장서 비치 및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면 현재의 우리나라 청소년 및 일반의 독서 현실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서관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출판계의 노력도 중요하다. 중소형 출판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출판사에서 독서정보의 효율적 제공까지 담당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무리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장기적인 독서의 저변 확대가 결국 출판사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몇몇 출판사들이 자신들과 유사한 도서를 출간하는 출판사들과 공동으로 독서정보를 제공하는 책자 등을 제작, 각급 기관에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 결국 이러한 노력은 일정 규모 이상의 출판사가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 셈이다. 따라서 출판계에서도 눈앞의 판매 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독서의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개별 출판사의 차원을 넘어 출판계 전체 차원에서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물론 출판계 전체 차원에서 단체와 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때 개별 출판사들은 그에 따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